

서울YWCA

2023. 5/6 vol.624



하나뿐인 지구와 동행하는 방법

온실가스 줄이는 '대안소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2021년 기준)은 무려 6억 7,960만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지구를 생각하며 만든 제품으로 대체하는 '대안소비'로

온실가스 줄이고 하나뿐인 지구와 동행해요!

대안소비 제품으로 바꿔 사용해요!

- 플라스틱 빨대
- 플라스틱 수세미
- 비닐 랩
- 플라스틱 치약
- 플라스틱 샴푸
- 플라스틱 칫솔



- 스테인레스 빨대
- 생분해 식물성 수세미
- 허니 랩*
- 고체 치약
- 고체 샴푸
- 대나무 칫솔



* 꿀벌에게 얻은 밀랍, 송진, 오가닉 오일과 면으로 만든 식품 전용 비닐랩으로 세척 후 6개월 이상 재사용이 가능

2023년
5·6월호
624호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5월 공동기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묵묵히 사막을 통과하는 낙타처럼 사는 이가 경이롭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잣대를 용기 있게 거부한 채 두뼘두뼘 자기 길을 가는 사자의 삶도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겸손히 배우게 해주십시오. 룴루랄라, 아멘.

6월 공동기도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의 타는 목마름을 기억합니다. 오랜 분단의 아픔에 잠 못 이루던 그의 불면증이 아름답습니다. 예수와 만나서 해갈의 기쁨을 누리 그처럼,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둥근 평화를 전염시키며 살겠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아멘.

〈서울YWCA〉 2023년 5·6월호 통권 제624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3년 5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전현숙 편집부위원장 전영지 편집위원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 2 **즐거운 불편운동**
온실가스 줄이는 '대안소비'
- 4 **시대를 살리는 말씀**
생태 위기와 창조영성
- 6 **Y 이슈**
이사·위원 연구모임
- 8 **특집**
튀르키예 긴급구호 텐트에서 쓰는 편지
- 10 **현장 속으로**
미안마 여성권리 증진 프로젝트
성평등 미디어 아카데미
- 14 **살롱한 교회 생활**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2편
- 16 **예술과 여성**
꽃으로 인생을 표현한 라헬 루이쉬
- 18 **서울Y 소식**
3·4월 뉴스
5·6월 행사안내
5·6월 캘린더
- 21 **시민걷기축제**
- 24 **알림터**
- 26 **후원 소식**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유계완, 서울Y 역대이사

-  www.instagram.com/seoulywca_korea
-  www.facebook.com/seoulywca
-  검색창에 서울YWCA
-  blog.naver.com/ywcaseoul
-  검색창에 서울YWCA

생태 위기와 창조영성



최대광
공덕교회 담임목사
감신대 객원교수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며 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과 생태와 늘 같이 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생태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학과 이에 기초한 영성이 체화되어야 합니다.

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마 과거에는 꽃, 따뜻한 바람, 약간의 졸림 이런 것이었을텐데요, 이제는 '미세먼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는 인간으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와 생태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Y에서도 다채로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뒷받침하는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은 별로 단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주로 내 영혼의 구원, 즉 내면적 구원과 '초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오직 인간의 내면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생태-인간

지난해 우리교회에서는 미국의 영성신학자이며 성공회 신부인 매튜 폭스의 「원복」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래 이 책의 원본은 별로 어렵지 않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대단히 어렵게 번역되어서 읽는데 꽤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복」과 더불어 폭스가 전달하려고 하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닐다」
최대광 지음, 신앙과지성사 펴냄

는 “창조영성”을 쉽게 풀어 쓴 책 「하나님의 창조 안에 머물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창조영성’이란, “하나님-인간”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생태-인간”의 관계 안에서 신학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영성운동입니다. 만일 교회와 신학이 인간의 내적 영혼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생태’는 신학과 영성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결국 오늘날의 생태위기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한다 해도,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 교회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 창조영성이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생태-인간”이라는 구조를 이미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안에 거니는 것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만이 아닌 ‘천지’ 곧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면서,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요 1:14). 말씀 곧 그리스도에 의해 천지

가 창조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받아 독일의 신비가이고 신학자인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창조란 “말씀이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창조란 하나님께서 ‘말씀’ 하셔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창조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신학적 선언은, 정확히 삼위일체적입니다. 삼위일체란 사람들에게 수학적 난해성을 던져 헛갈리게 하기 위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란 창조주이신 성부께서 성자이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하나님(성령) 안에 있으며 하나님(성령)께서는 세상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며 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에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하나님께서 늘 같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은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에너지에 가까운 표현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다면, 그 말씀은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와 같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철학적으로는 ‘지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말씀 되신 그리

스도께서는 나의 생명과 호흡이 되시며, 내가 존재하고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상태, 곧 하나님 현존의 상태,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 안에 거니는 것”이 곧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인간의 책임을 강조

이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과 생태의 파괴는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 시키는 성자, 곧 말씀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피조물 안에 계시고 피조물을 감싸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 중 삼위일체는 인간과 생태와 늘 같이 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생태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학과 이에 기초한 영성이 체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듯, 우리도 생태의 문제에 응답하고 새로운 문화와 삶을 창조해 나갈 때, Y의 생태운동은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Y

이사·위원 연구모임

2023년 이사·위원 연구모임이 3월 30일(목)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사, 위원, 실무자 100여 명이 모여 개최예배를 드린 후 주제 강의를 들었다.

생태여성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Y는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워크숍이 이어졌다.



설교를 맡은 최영태 목사



인사말씀 전하는 조연신 회장

개회예배는 배은경 부회장의 인도로 드려졌다. 황성연 이사의 기도에 이어 최영태 목사(송동교회 담임)는 창세기 12장 1-9절을 가지고 ‘사명자의 영적 자기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사명자로서 우선 자신부터 바로 서 있는 지 날마다 점검하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보호하십니다.”

서울Y 모두가 사명자로서 현재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지, 허락하신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늘 영적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자고 권면했다.

끝으로 전현숙 이사의 기도와 함께 드려진 특별 헌금은 서울Y ‘미안마 여성 권리 증진 프로젝트’의 결실로 세워진 판다웅지Y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주제 강의

생태여성,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의를 하자

송진순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연구원 ·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외래교수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

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YWCA 목적문 안에 생태여성주의가 잘 담겨 있다.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는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 두 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이자 운동이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주변을 바라보는 ‘환경’과 달리, ‘생태’는 각각의 존재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는 개념을 갖는다. 프랑스와 도본느(프랑스 페미니스트)는 1974년 「페미니즘인가 아니면 죽음인가라는 책에서 생태여성주의를 처음 언급하며, 현대 사회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여성 억압 등 지구적 문제들의 원인이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에 있음을 지적하고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주장했다. 결국 생태여성주의는 위계적 관점, 타자화에 대

한 폭력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다. 환경오염, 기후위기, 생태문제가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후정의는 곧 젠더정의라고 볼 수 있다.

생태여성주의의 목표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서 폄하·훼손된 여성과 자연을 재발견하고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를 하는 것이다. 또한 타자화된 존재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고 돌봄과 상호의존, 생태적 감수성, 관계적 자아, 시민권 논의에 근거한 사회를 이루는 데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성의 인식과 실천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재발견, 돌봄 사회로의 전환, 생태 감수성 증대, 기독교 시민으로서 책임있는 응답을 제안한다. 특히 ‘돌봄’은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갖추어야 할 사회적 역량이다. 또한 인간 아닌 다른 존재 생명체만이 아니라 비생명체에 대해서도 각 존재의 고유의 역할과 가치를 인지하고 존중할 줄 아는 생태인지 감수성을 키워나가자.Y

[워크숍] YWCA 기후위기 대응 제안

- 지역사회의 소모임을 강화해 운동 실천력을 높이자
- 인간 중심의 ‘환경’이 아닌 각각의 존재가 주체가 되는 ‘생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 생태 소비, 윤리적 소비 등 가치 소비를 하자
- 여성의 강한 연대로 여성 리더를 세워 입법, 정책 수립 등에 영향력을 키우자
- 생태 감수성을 키우자
- 모든 부분에서 다이어트를 하자



튀르키예 긴급구호 텐트에서 쓰는 편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이 발생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다. 여진의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먹고 사는 일상은 계속되고 있다. 긴급구호 후 컨테이너 도시 조성이 추진 중이며 지진피해 복구에는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진
기독교영화(다큐멘터리) 연출·제작 PD
희망친구 기아대책 영상PD

저녁 7시 59분 '튀르키예 안타키아'에 진도 6.9의 여진이 있었다. 2월 6일, 첫 지진(진도규모 7.7)이 있고 딱 일주일 만이었다. 6.9의 지진에서는 책상과 의자가 좌우로 20cm 가량 움직인다. 진원지는 바로 우리 긴급구호 텐트촌 본거지가 있는 '데프네(안타키아 내 작은 도시)'. 운전 중 지진을 느꼈고, 길이 출렁거리고 모든 가로등이 꺼져 앞이 삽시간에 캄캄해졌다. 차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텐트에는 기아대책 간사와 현지 통역직원이 남아 있었다. 확인 전화를 하고, 눈을 돌리자 빠르게 오가는 구급차들이 보였다. 첫 지진 후 사람들은 주거지를 떠나지 못하고 집 앞이나 공터, 공원에 정부에서 설치해준 텐트에서 임시 거주 중인데, 다시 여진이 났다.

다시 시작되는 일상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한 번에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이다. '아다나(안전지대)'로 나와야 하는가? 남은 이들을 확인하러 안타키아(긴급구호 텐트촌)로 들어가야 하는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차는 안타키아로 향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텐트촌 근처. 사방은 어둡고 도로는 통제되어 있었다. 멀리 차를 세우고 걸어가야 했다. 모든 불빛이 꺼진 어둠 속에서 주민들이 서로를 안고 울고 있었다. 멀리에서는 사람이 다시 매몰된 듯 다급한 외침들이 들려온다.

긴급구호 텐트는 호수공원가 230여 개의 이재민 텐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텐트촌의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어둠 속에서 군인들이 피운 모닥불을 쬐고 있었다. 잠시 모여 앉아 있는 곳에서도, 땅의 울림이 계속 느껴졌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지만, 이 밤의 끝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밤이, 그렇게 흘렀다. 날이 밝고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무너진 아파트와 교회인 신지가



긴급구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텐트촌



배식을 위해 모여든 안타키아 사람들

“Günaydın!” (굿나잇 : 아침인사)

“Nasılsınız?” (나슬스느즈 : 괜찮으세요?)

매일 주고받는 인사가 오늘은 다르게 다가왔다. 다시 텐트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배식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먹고 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배식소의 아저씨가 부탁하지도 않은 뜨거운 차를 우리 텐트로 날라 왔다. 한참을 튀르키예어로 말하던 그의 말을, 다 알아들었다. 마음 이 다 알아들었다.

튀르키예 초대교회, 수리아 안디옥의 땅

튀르키예의 지진이 마음 아픈 이유는 많다. 피해를 입은 '안타키아'는 베드로와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수리아 안디옥(시리아의 안디옥)'이다. 이곳의 교회가 무너진 것이다. 또한 6.25 한국전쟁의 21개 파병국 중, 네 번째로 많은 수(21,212명)의 군인을 보낸 나라가 튀르키예다.

우리는 이러한 튀르키예의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안타키아 도시의 재건을 돕고 있다. 주 2회 이재민의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한 물자를 배분한다. 튀르키예 정부가 제공하는 식량과 물을 제외한 생필품이 보통이다. 밤에 자다가 벗은 발로 뛰쳐나온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는 신발과 옷가지, 담요, 속옷, 분유와 아기용품에 집중을 했다. 3월에 들어서는 프라이팬과 식기구, 세제와 커피와 차, 어린이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점점 필요항목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인 물품은 한정된 품목(주로 옷가지)이어서, 다양한 생필품의 품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튀르키예 현지에서 구매해 배분을 하고 있다.

컨테이너 도시 조성 지원

긴급구호는 보통 3개월 정도 계획하며 진행된다. 3개월 정도 필요한 물자를 초기 분배하면, 이후에는 해당 정부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수습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튀르키예의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가 NGO들과 더불어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3년간, 그 이상의 지원 플랜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긴급구호가 마무리된 후에는 주민이 기거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지원한다. 현재 튀르키예 정부는 컨테이너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안타키아'만 해도 23만 명이 기거하던 도시라 적어도 10만에서 15만 규모가 필요하다. 기아대책 역시 이 컨테이너 도시를 계획하고, 논의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또한 '하타이(안타키아가 속한 주) 주지사는 한국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과 직접 대면한 회의에서 앞으로의 교육사업(학교 설립)과 보건사업을 부탁했다. 5월부터는 한국 정부와 튀르키예를 재건하는 일에 함께할 계획으로, 실제 KDRT(대한민국 민관군 해외긴급구호대)가 실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장기적인 모금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지진복구를 위한 기간을 10년 넘게 보고 있다.

“왜 대한민국의 민간단체가 '튀르키예'의 작은 마을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가?” 긴급구호 텐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대규모 파병 이야기를 한다. 1953년에 휴전된 후에도 튀르키예 군은 1960년까지 추가병력을 파병해 한국의 전후 복구를 도왔다.

“당신들이 먼저 우리를 도왔다!” 말하면, 그들은 말없이 우리의 손을 잡거나 혹은 안아주기도 한다. 우리는 단지, 잊지 않았을 뿐이다. ♪

미얀마 여성권리 증진 프로젝트 변화를 만드는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미얀마 군부 독재와 분쟁지역 속 여성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서울Y는 2020년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미얀마 분쟁지역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성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이하 미얀마 여성권리 증진 프로젝트)를 통해 미얀마 여성과 함께했다. 서울Y는 미얀마Y와 손잡고 70여 년 간 무력 분쟁을 겪은 미얀마 카렌주 만다웅지 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리더십 육성을 위해 힘썼다.

봉제교육 · 호텔 서비스교육으로 가계 소득 증가

미얀마 여성권리 증진 프로젝트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했다. 의류, 가방 등 다양한 수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는 봉제교육과 보카렌족 고유 식문화 서비스, 비즈니스

영어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 호텔 서비스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참여자 35%의 가계 소득이 2020년에는 34%, 2022년에는 5%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불안정한 현지 정치 상황으로 많은 호텔이 폐업하고, 이에 따른 구직 기회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여성들의 가계 소득이 증가했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미얀마 여성의 자존감 높여

생업을 위한 실용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 향상 또한 중요하게 여겼다. 여성이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을 포함했다.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며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미얀마YWCA 구성원과 프로그램 참가자들

수 있도록 돕는 성평등 교육, 앙트러프러너십(창의적 기업가정신) 교육을 진행했다. 직업 교육과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진행 후 참여자 자기 효능감이 평균 43% 증가 있었다.

여성의 권리 증진은 개인의 차원에서 나아가 마을과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해 주요 관계자, 여성 참여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진행했다. 젠더의 개념과 관련 용어, 여성권리 향상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이해, 미디어 속에서 드러나는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며 교육 참여자의 성평등 인식이 30% 증가했고, 교육참여자 가족의 성평등 인식도 20%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여성참여자 자조모임 공식 여성조직구성으로 이어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봉제 교육 및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은 '스스로 돕는다'는 뜻의 자조모임을 형성하도록 도왔다. 자조모임에는 봉제 교육에 참여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품 생산 현황을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개척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활발한 자조모임 활동은 미얀마 수도 양곤의 유웨이 센터, 서울 YWCA 큰장날에서 가방, 파우치, 수공예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의 성과로 이어졌다. 판매처 개척을 통한 소득 증가와 더불어 무엇보다 자조모임의 빛나



는 성과는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 여성조직구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미얀마 여성권리 증진 프로젝트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지속된 불안정한 정치 상황, 군부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전해주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여성들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향상시켰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얀마 여성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옷 가게를 여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미얀마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어 계속 성장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Y 정리_이지은 국제운동팀 간사

참가자 소감

나우 사 키 라
Naw Hsar Khee Lar

가방과 옷을 만드는 교육을 통해 생각보다 더 큰 자신감을 얻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 계기였는데요. 맞춤 의류 기술을 더 익혀 저만의 옷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나우 뽀 투
Naw Lwel Htoo

봉제뿐 아니라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에도 참여했어요. 저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개발해 마을 주민과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 옷과 가방을 주문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해 독특하고 특별한 제품으로 더 큰 수입을 얻을 거예요.



서울Y 성평등 미디어 운동 10주년 기념 성평등 미디어 아카데미

서울Y는 2013년부터 성평등 미디어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내용 분석 보고서 발행, 토론회, 집담회 등 다방면에서 변화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특별히 올해는 성평등 미디어 운동 10주년을 맞아 '성평등 미디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화·목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서울Y 회관에서 젠더 관점으로 미디어에 대한 실태를 짚고 다양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봤다.

특히 서울Y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활동으로 실제 방송과 업계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언급하며 10년간의 성평등 미디어 운동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강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미디어에서 성평등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을 한 데 모았다. 이 공론의 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카데미를 이수한 참여자들로 2023년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이 꾸려졌다.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Y는 앞으로도 곳곳에서 미디어의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모니터단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책임 있게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방관하는 관전자가 아닌 적극적인 개입자가 되어야 한다. "Be an upstander, not a bystander!" 함께 행동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회와 미디어가 공명하게 될 것이다.

한 참여자는 이번 아카데미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강의가 아닌 직접 움직여야 하는 동기부여와 정당성을 선사해주는 수준 높은 강의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Y는 차별과 혐오의 사회에서 '꺾이지 않는 관점'으로 성평등한 변화를 위해 전진할 것이다. Y

정리_이기쁨 여성운동팀 간사



1회차 젠더 관점으로 짚는 10년

최지은 작가
책 <괜찮지 않습니다> 저자



지난 10년간 예능의 경향과 흐름을 중심으로 예능 속 성차별·성평등한 지점들을 살펴보니 2015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현재 예능의 판이 좀 더 나아졌다.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성 중심적) 한국 예능 판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해 왔다. 따라서 미디어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해야 한다.

2회차 청년, 젠더 그리고 미디어

홍지아 교수
경희대 미디어학과



청년담론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누가 어떻게 MZ세대를 호명하는가, 그리고 미디어가 재현한 MZ세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미디어가 재현하는 청년 젠더의 모습이 다양한 측면을 다양하게 재현하고 있는지, 극단적 젠더갈등 담론 속에서 이대남, 이대녀는 청년세대를 과연 대표하고 있는지, 미디어가 재현하는 사랑과 연애의 모습은 다양한 지 등의 문제의식을 통해 미디어가 소비하는 청년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3회차 웹툰은 왜 차별주의자들의 주요 전장이 되었는가

위근우 작가·문화평론가
책 <뽀족한 마음> 저자



웹툰을 둘러싼 세 가지 차원과 인터넷 문화 전쟁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웹툰의 문제는 인터넷 문화 전쟁이라는 맥락 안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 대안으로 차별주의자들에게 맞설 우리의 언어가 각자도생에 포섭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나은 미래의 전망을 비추는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특별히 혐오의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전진이 가능했던 역사의 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4회차 디지털 시민성과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김수아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여성학 협동과정



미디어가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그렇지 않은 미디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차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는 '차별 비하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지 않는 것'으로, 미디어를 읽고 활용할 때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관점, 차별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추구해야 할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방향은 개인과 집단의 책임, 사회적 영향에 대해 생각하면서 차별을 막으려는 공동체의 지식과 시술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살롱한 교회 생활

살롱한 교회 생활이란 '성평등한 교회', '차별 없는 안전한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한다. 성평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차이와 개성을 존중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하지만, 특히 목회자에게는 성평등한 관점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서울Y는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살롱한 교회 생활>을 제작했다. 교회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교회 운영에 참조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담았다.

평등한 사역편

“엄마! 여자 목사님도 있어?”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청년이 사모가 되어 부목사로 있는 남편을 따라 어느 지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을 때, 다섯 살짜리 딸이 엄마에게 물었다. 아빠가 목사인 아이는 여자 목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빠처럼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릴 적 나도 그랬다. 여자 목사를 본 적도, 여자 목사에 대해 들은 적도 없었기에 목사는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다.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목사가 된 요즘에도 종종 “여자 목사도 있어요?”라는 말을 듣는다.



- ① 평등한 설교편
- ② 평등한 사역편
- ③ 평등한 교육편
- ④ 평등한 언어편
- ⑤ 평등한 관계편



성평등 사역을 위해 약속해요!

①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를 꿈꿔 주세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동거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생물학적 가족 중심의 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가족'이라 가르치며 강요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잘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정상이라 여기며 정죄합니다. 또 '가족찬양대회'나 '자녀축복기도회'와 같은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들로 인해 점점 더 소외되는 이들을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정상가족을 넘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느 누구나 환대 받으며 속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③ 여성의 자리를 확보하고 지켜요

대부분의 교회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많지만 목사, 장로, 부서장 등 리더의 자리에는 주로 남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 리더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여성이 리더가 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리더가 되기 원하는 여성은 '여자가 너무 드세다, 나댄다'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경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은 각각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되지만 여성은 모든 여성의 대표가 되어 무거운 책임을 견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여성의 자리를 확보하고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만들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리더로 세워졌을 때는 조금하게 성과를 요구하기보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지지해 주세요. ♪

② 동등한 사역의 기회를 주세요

현재 교회 사역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주방은 여성의 일로, 주차는 남성의 일로 고정되어 있거나 남성은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고, 여성은 보조적 위치에 놓이거나 하는 일이 많아요. 목사나 장로는 대부분 남성이고 영유아유치부와 아동부는 여성이,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남성이 교사나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유리천장을 제거하고 교회 구성원 누구나 사역의 동등한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여자' 또는 '남자'라는 이유로 사역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전문성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꽃으로 인생을 표현한 라헬 루이쉬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머니타스아카데미 원장



라헬 루이쉬
Rachel Ruysch
1664 - 1750

고드프리드 살켄 「라헬 루이쉬의 초상」
캔버스에 유화, 71.8 x 62.2cm
Cheltenham art Gallery
and Museum 소장

네덜란드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여성 화가인 라헬 루이쉬는 화려한 꽃 정물화로 유명하다. 여자가 화가로 성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던 시절 오로지 꽃만 그림으로써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유명세를 탔고, 당대에는 렘브란트보다 비싸게 그림이 팔리기도 했다. 라헬 루이쉬가 꽃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라헬 루이쉬는 1664년 헤이그에서 식물학자이자 해부학자인 프레데릭 루이쉬와 건축가 피터 포스트의 딸인 마리아 포스트 사이에서 태어나 3살 때 암스테르담으로 이사한 후 생의 마지막까지 암스테르담에서 살았다. 그림 그리기가 취미였던 그의 아버지는 암스테르담 대학의 해부학 및 식물학 교수로서 방대한 양의 동물 뼈와 광물, 식물 표본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은 라헬이 관찰하고 드로잉할 수 있는 좋은 자료였다.

렘브란트보다 높은 인기

라헬 루이쉬는 15세 때, 꽃 정물화를 잘 그렸던 빌렘 반 엘스트(Willem van Aelst)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1683년 엘스트가 사망할 때까지 그로부터 꽃병에 자연스럽게 꽃을 배열하는 방법이나 입체적으로 꽃을 표현하는 법 등을 배웠으며, 18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팔기도 했다. 루이쉬는 초기에는 주로 작은 동물, 파충류, 나비, 이끼 낀 나무 조각 등을 그렸으나 점차 꽃 그림에 천착하여 화병에 꽂힌 꽃만 그렸다. 1693년 초상화가인 유리엔 폴(Juriaen Pool)과 결혼한 후 10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붓을 내려놓은 적이 없으며 국제적 고객들을 위해 작품을 그렸다. 1708년부터 1716년까지는 독일 뒤셀도르프의 궁정화가로서 일하기도 했다. 루이쉬가 당시 여성이 고스란히 담당해야 했던 육아와 가사에도 불구하고

하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기르면서 자신의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유모나 가사도우미 등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는 거장으로 추앙받는 렘브란트가 당대에 자신의 그림을 12-500길더 정도에 팔았던 것에 비해 루이쉬의 작품은 750-1200길더에 팔렸을 만큼 인기가 있었다.

부의 상징 꽃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 표현

서양에서 정물화가 하나의 장르로 등장한 것은 17세기로, 그 이전까지 정물은 인물화나 종교화의 배경 속 소품에 불과했다. 16세기 후반 툴립이 튀르키예에서 네덜란드로 유입된 이후 네덜란드인들은 툴립을 미친 듯이 사랑했다. 원예산업과 식물학의 발전으로 네덜란드는 새롭고 이국적인 꽃과 식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것은 부유층에게 사치품인 동시에 신분의 징표였다. 꽃이 부의 상징처럼 되면서 바로크 시대에 꽃 정물화가 유행하게 된 것이다. 꽃을 그린 여러 화가 중 라헬 루이쉬는 특히 명성이 높았던 화가였다.

루이쉬 그림의 특징은 어두운 배경 속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화병에 꽂힌 화려하고 풍성한 꽃이다. 사실 루이쉬는 실제 꽃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식물도감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 보니 그의 그림 속 꽃은 계절과 상관없이 다양하면서도 이국적인 꽃이 어우러져 있다. 장미, 툴립, 흰색에 붉은 줄무늬 있는 툴립, 미나리아재비, 메꽃, 양귀비, 카네이션, 마리골드, 나팔꽃 같은 꽃들을 자주 그렸다. 그 모양은 활짝 핀 꽃, 꽃봉오리, 시들어가는 꽃, 축 늘어진 것들로 열매, 나뭇잎, 풀잎들과 어우러져 인생의 다양한 단면들을 보여 준다. 인생에서 느끼는 행복, 슬픔, 성장, 죽음, 과거, 현재, 미래 등의 삶의 여러 단계를 꽃을 통해 드러낸다. 거기에 나비나 풀벌레 같은 곤충을 더해 진짜 살아 있는 꽃처럼 연출한다.



「꽃다발과 자두가 있는 정물화」 1704

성별을 넘어 손꼽히는 최고의 정물화가

루이쉬의 그림은 17세기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네덜란드의 부와 문화생활을 시각화한 것으로 당시의 귀족이나 미술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뜻하는 바니타스(Vanitas)를 꽃을 통해 상징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꽃의 질감과 색감 표현에 탁월하면서도 매우 세밀한 표현에 뛰어났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작품의 특성상 1750년 타계할 때까지 70여 년의 작품활동 기간 남긴 작품은 250여 점 정도밖에 안 된다. 현대의 미술사가들은 라헬 루이쉬를 성별을 넘어 가장 뛰어난 정물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고 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YWCA 성명서

일본 정부는 이르면 4월 말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확정지으며 일본 정부가 국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동안,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정부의 요구들을 적극 수용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마저 묵인하였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의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의 방관 속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래로라면 방사성 오염수의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용한 일본정부나 도쿄전력이 아닌 제3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해양 생태계와 이에 기대어 살아가는 전세계인이 감당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다핵종저거설비(ALPS)를 거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다핵종저거설비는 삼중수소를 비롯해 인체에 치명적인 핵종들을 거르지 못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희석'은 방사성 물질의 절대량을 줄이지 못한다. 무려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는 지난달(2023년 2월) 기준 133만톤이다. 1,066개의 저장탱크에 나뉘어져 있는 오염수에 대한 안정성 검증 또한 믿기 어렵다. 일본은 저장탱크 중 어느 것에도 64종의 방사성 물질 모두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고 단 7개의 핵종에만 집중하여 검사했으며, 이마저도 바닥에 가라앉은 고준위 슬러지 폐기물을 섞지 않은 채 30리터만을 채취하여 진행했다. 이 검사 데이터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들이 있으나 도쿄전력은 자신들도 모른다는 답변만을 내놓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손잡고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아닌 시민의 소리에 응답하라!
-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적극 저지하라!
-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 안전을 지켜내라!



4월 6일 용산 대통령직무실 앞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전국YWCA 긴급행동

이처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한국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정부와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이해와 타협의 영역이 아니며, 국제적 방사능 테러이다. 이번 방류가 결정된다면 우리 바다는 방사능의 위험에 처할 것이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또한 악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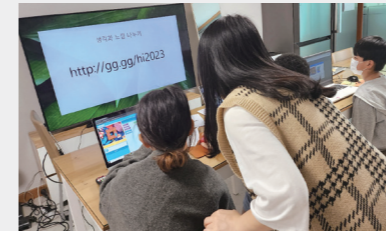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의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바다와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산물을 유통하고 공급하며 생업을 삼는 사람들, 정성으로 준비한 밥상을 나누는 사람들, 모든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전선 당사자이다.

지난 100년간 정의, 평화, 생명의 발걸음을 걸어온 YWCA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찍이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지속해왔다. 생명을 살리는 여성으로 모인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바다와 먹거리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누리봄

스마트한 코딩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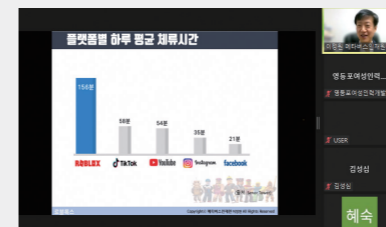
누리봄은 3월 25일 관악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한 코딩교실'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반·고학년반, 중고등반 3개의 그룹으로 나눠 각 10회기 씩 총 30회기가 8월까지 진행된다. 누리봄 아이들이 디지털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등포

메타버스 코딩강사 양성과정 설명회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월 15일 메타버스(로블록스) 코딩강사 양성과정 직종설명회를 온라인 줌으로 열었다.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지만 코딩교육용으로도 활용이 높다. 2022년 8월 정부 방침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코딩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코딩 강사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원

노원구 일자리박람회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4월 1일 중계근린공원에서 진행된 노원구일자리 박람회 '좋은 취업, 일자리 이음 한마당'에 함께했다. 지역 내 우수중견·중소기업 4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노원센터는 프레디저 진로적성진단부스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 총 64명의 구직자가 발굴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봉천

드림윙즈(Dream Wings) 축구단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22일 '드림윙즈 축구단 2기' 발대식을 열었다. 드림윙즈 축구단은 8-11세 아동 22명(남 17명, 여 5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신한라이프 빛나는재단 후원으로 운영되는 축구단은 아동에게 축구화, 유니폼 등 개인물품을 지원하고, 주 1회 전문코치와 함께하는 축구수업과 프로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강남

강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강남청소년수련관은 3월 18일 2023년 제4기 강남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25명의 청소년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발대식에서는 위원회 연간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관계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정책 제안,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

서울Y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 성차별, 인종차별, 국제분쟁에 대해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6차에 걸쳐 온라인으로 마련한다.

- 일시 4월 18일(화) - 5월 23일(화)
19:00-20:30
- 문의 02-3705-6069
- 신청 온라인 신청



일시	주제 · 강사
4월 18일(화)	기후-정치-생태학 :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기후-정치 박일준 감신대 종교철학과 교수 저서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지구 정치 신학>(역)
4월 25일(화)	세계는 왜 싸우는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 저서 <세계는 왜 싸우는가> 방송 <유 퀴즈 온 더 블록>
5월 2일(화)	근현대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멸칭의 역사 정희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한 번은 불러보았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방송 <차이나는 클라쓰>
5월 9일(화)	여성, 생명, 자유 :이란 여성들의 반격과 연대의 목소리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저서 <오늘을 넘는 아시아 여성>,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
5월 16일(화)	직업 환경 속 여성의 몸, 수치심, 연대에 관하여 캐런 메싱 Karen Messing 퀘벡대 생물학과 명예교수 저서 <일그러진 몸>, <보이지 않는 고통>
5월 23일(화)	기후 비상사태와 마주하기 대니얼 셰럴 Daniel Sherrell 기후변화 활동가 저서 <뜨거운 미래에 보내는 편지>

신규 프로그램

•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SW-AI융합교육 전문가	5월 2일(화)-7월 20일(목) (월-금, 14:00-18:00)
방과후 코디네이터	5월 15일(월)-7월 12일(수) (월-금, 14:00-18:00)
SW테스트 전문인력	5월 15일(월)-6월 19일(월) (월-금, 10:00-17:00)
이모티콘 캐릭터 크리에이터	5월 22일(월)-8월 1일(화) (월-금, 9:30-13:30)
고용서비스기관 행정실무자	5월 25일(목)-7월 26일(수) (월-금, 14:00-18:00)

• 교육비 10만원(수료 · 취업 시 환급)

• 문의 02-858-4514

과정명	교육일정
초등돌봄교사 양성	5월 10일(수)-7월 17일(월) (월-금, 9:30-13:30) *직종설명회 4월 18일(화) 11:00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 (장기요양기관 실무)	8월 2일(수)-9월 27일(수) (월-금, 9:00-13:00) *직종설명회 7월 12일(수) 11:00
보험총무사무원	8월 23일(수)-11월 2일(목) (월-금, 14:00-18:00) *직종설명회 7월 27일(목) 14:00

건강한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

2023 서울YWCA
시민걷기축제



일시 5월 20일(토) 오전 8시 - 11시 30분
장소 남산공원(백범광장, 남산순환로)

- 프로그램
- 8:00 - 8:30 여는 마당 - 식전 행사, 개회식
 - 8:30 - 10:40 걷기 마당 - 남산순환로 걷기
 - 10:40 - 11:30 어울림 마당 - 체험부스, 행운권 추첨, 폐회식

복 장 흰색 상의, 남색(청색) 하의

참 가 비 1인 5,000원 (기념 손수건 제공)

접 수 서울Y 본부 · 5개 지부로 사전 신청, 온라인 접수

문 의 02-3705-6000, 6032



온라인 접수 바로 가기


- ❖ 주차장이 혼잡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 운동화, 개인용 돗자리를 준비해주세요

- 기념 손수건이 있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노약자는 행사 진행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가 와도 열립니다 (우산 · 우비는 개인 준비)



CALENDAR

2023 **5**

월	화	수	목	금	토
1 근로자의날	2 ·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 (~23일, 매주 화) 19:00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정기모임 19:00	3 · 소리모아 (~31, 매주 수) 17:30-20:30	4 위원회 재정부 11:00 장학 13:00	5 어린이날	6 · 평화통일기획단 피스톡톡 11:00-13:00 · 온새미로 13:00-15:00 · 씽크머니(20일) 13:00-15:00 · 그린Y(20일) 14:00-16:00
8 · 역대이사 모임 11:00	9 이사회 10:00 · 누리봄 문화체험 20:00	10	11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0:00 · 은하수 19:30-21:00	12 · 평화아카데미 기획단 18:00-20:00	13 · 강남 청소년동아리 연합 발대식 10:00 · 대학·청년YWCA 협의회 10:00-11:00 · Y-틴 협의회 11:00-12:00 · 키다리학교 13:00-15:00 · 울력 13:00-15:00 · 간병사 심화교육 14:00
15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16 위원회 누리봄 10:0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 강남역여성혐오범죄 7주기 추모 여성주의 연합예배 19:00	17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18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월례회·재교육 요양보호사 15:00	19 위원회 강남Y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20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강남 세계문화축제 11:00
22 위원회 봉천Y 11:00	23	24 · 신입위원 교육 9:30	25	26	27 부처님 오신 날
29 대체휴일	30 위원회 · 인사 11:00 · 임원 12:00	31			

CALENDAR

2023 **6**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3 · 청소년팀 장학생 간담회 13:00-14:30 · 온새미로 13:00-15:00 · 평화통일기획단 피스톡톡 (17일) 11:00-13:00 · 씽크머니(17일) 13:00-15:00 · 그린Y(17일) 14:00-16:00		
5	6 현충일	7 · 소리모아 17:30-20:30	8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재정부 11:00 · 은하수 19:30-21:00	9	10 월례회·재교육 신후조리사·아기돌보미 10:00 요양보호사 13:00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12 · 역대이사 모임 11:00	13 이사회 10:00	14	15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16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위원회 강남Y 11:00	17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울력 13:00-15:00	
19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20 위원회 누리봄 10:0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정기모임 19:00	21	22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00	23	24	
26 위원회 봉천Y 11:00	27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8	29	30		

회원 소식



이유림 직전회장
2월 23일(목)
2023년도
(사)한국YWCA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2회 이행자리더십
어워즈 수상

2022년 서울Y 100주년을 맞아 YWCA 역사와 의미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인 설립을 통해 기독교여성단체로서 공익운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헌

이종미 강남청소년수련관 관장
3월 22일(수) 부친상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북멘토링 프로젝트'의 북멘토가 되어주세요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705-6034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5월 19일(금) 6월 16일(금) 10:00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아기돌보미	63세 이하 여성		
세이프맘			
간병사	65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5월 11일(목) 10:00	4만원
		6월 22일(목) 13:00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회원이 낸 책

은총의 나날

이연배 증경회장 지음
명작 펴냄



“저의 77년 삶을 이우르는 단어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연배 증경회장이 희수를 맞아 풍성한 삶의 조각보를 엮어, 도록 <은총의 나날>을 출간했다. 서울Y와 함께한 ‘봉사의 삶’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나눔의 삶’, 오토젠 기업 대표로서의 ‘책임의 삶’, 교회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얻은 ‘더불어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보금자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사랑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빚어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이 도록을 통해 충만한 주님의 은총만이 드러나길 바란다”는 저자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IOPE



바르는 입체각 리프팅
NEW PDRN X CAFFEINE SHOT

감사합니다

2023년 2월-2023년 3월

특별 후원



- 이유림 실무자연수 찬조
- 배은경 이사·위원 연구모임 기념품비

일반 후원



강명희 강서현 고려욱 고선혜 광민규 구영숙 기영숙
 김미자 김병호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옥매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호신 민혜경
 박대화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배정미 서해영 석성욱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양진화 염현경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율요까페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애진 이옥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흥자 임중현
 임지영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수경 정승원
 정은숙 조길수 조성환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채재호 최경자 최 봄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한국직업능력진흥원

북멘토링 후원



김민아 감상희(김한나)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언 신여영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염현경 예정원 우영숙 율요까페
 유지현 이수미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나미 정모아 조민형 최동수
 최 봄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도너월 업그레이드



- Y-Honors Club 재정위원회 (1억원 이상)
- Y-Friend Club 김영자 박소현 윤현숙 (1천만원 이상)
 윤혜선 이숙현 지복임
 최한나 정동제일교회
 국제협력위원회
- Y-Club 박숙자 신정자 정수경 (5백만원 이상)
 최혜란 황혜진
 여성참여위원회
 평생체육위원회

재능 기부



- 이경순(명예위원)
- 2023년 3·4월 회보 '영화와 삶' 칼럼 기고

월 CMS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남이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민아 강선경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유민 강윤정 강인지 강일훈 강주현
 강창석 강하자 강형식 경규연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정
 고은화 고은희 고인미 고재욱 고희애 고희자 공영주
 공우재 광미숙 광민정 광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부남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혁준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화 김경훈 김관옥 김관채 김광수
 김귀숙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영 김대진 김도근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두희
 김라엘 김량순 김말녀 김명후 김문자 김문휘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재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배옥 김병호 김보라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진 김소망 김소은 김수언
 김수연 김수연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재
 김승현 김시은 김애숙 김애주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에스터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주 김연희
 김영숙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해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민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진 김윤나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익동 김인하 김지희 김재경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구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운 김종하 김준희 김지나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혜
 김지호 김지희 김 진 김진숙 김진숙 김진아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현 김치백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한 김통범 김학희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양 김혜정 김혜진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효숙 김효은 김희성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미정
 나선화 남공진 남공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미선 노승은 노정자 노혜환 당효성 동지현
 류종현 류 혁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자영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경술
 민동성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갑년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구자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노영 박명운 박명자 박문성 박미경 박미란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순예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외정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훈 박정희 박종인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필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방윤옥 방윤우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정숙
 배중우 배진영 배호성 백명숙 백미리 백민주 백성원
 백옥선 백은엽 백인성 백정금 백 준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서근배 서미화 서빛나
 서영미 서옥덕 서은경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춘자
 서해원 서현옥 서현정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선점환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선희 송세실 송옥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송창은 송태언 송하윤 송혜승 송효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승우
 신승주 신연식 신용자 신정옥 신지숙 신지원 신지윤
 신청희 신총섭 신현미 신혜경 심재원 심정남 심정자
 심혜영 안두환 안병수 안성포 안성훈 안순자 안승계
 안영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안혜리 양기혁 양명옥 양세진 양수정 양영순 양영애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엄수길 여명진 염명경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명화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아름 오연아 오영아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왕정환 윤용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예목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환
 유주빈 유진선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교회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수진 윤순민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재혁 윤정향 윤정화 윤정희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계숙
 이광희 이규택 이금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운 이동현
 이명순 이명혜 이명희 이미숙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정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윤 이수진 이수영
 이순옥 이순천 이슬기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연아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희 이예림 이예은
 이옥경 이옥례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재건 이재경 이재옥 이재옥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이정현 이정환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아 이진영 이창희 이채진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행남 이행자 이향숙
 이현국 이현순 이현심 이현아 이현주 이형숙 이혜영
 이혜원 이혜주 이혜진 이화정 이희남 이희전 임경희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임선미 임성은
 임성준 임양수 임은유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자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준호 임중현 임지은 임지현
 임현주 임혜리 임호환 임희진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수용 장순복 장순종 장영랑 장용익
 장윤정 장주연 장철승 장현주 장혜영 장 훈 전덕기
 전미덕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유오 전윤숙 전은경
 전인옥 전재수 전행욱 전홍신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문옥 정미선 정민선 정상미
 정새와 정서진 정선덕 정선영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정숙향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연수 정연우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해운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정혜진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규원 조길수 조남억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호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예은 조오영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정훈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진희
 조하은 조혜성 조혜진 조홍신 주동일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영숙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지송분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영선 차경희 차미연
 차지혜 채송화 채송화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민 최명진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최 봄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희 최순자 최순태
 최승미 최승민 최승아 최신지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운영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희
 최윤호 최은성 최은주 최정호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재희 하정미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민희 한성우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용순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허경희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은순 흥경화 흥선미 흥수연
 흥승연 흥윤서 흥은미 흥정남 흥정혜 흥주실 흥진기
 흥학회 흥현표 흥호성 흥희정 황경희 황명숙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윤희 황은경 황주혜
 (주)사공디자인 양재2동어린이집 중앙이엔씨 콤마,와인
 향기나무

깊어지고 길어지는 주름 꼬리의 솔루션
 안티에이징의 기초를 바로잡다

에이지 포커스 프라임 링클 포 올 세럼 & 아이 포 올 크림



ISAKNOX

후원 계좌 | 농협 317-2021-0710-91 | 문의 02-3705-604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YWCA 회원이 되어주세요

서울Y는 1만 명의 여성 활동가와 함께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2개의 프로젝트에 이어, 2023년에는 20개의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기간
4월 17일(월)
|
6월 23일(금)

회원 구분

구분	회비
월 C M S	월 10,000원부터 직접 금액 지정
어린이 · Y-틴	5,000원
대 학 생	15,000원
일 반 · 회 우	30,000원
평 생	1,500,000원 (회원증모기간 내 1,000,000원)
단 체 (기 업)	150,000원부터

회원증모 기념품

봄봄 파우치

(어린이 · Y-틴, 대학생 제외)

* 봄봄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쉼터 누리봄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입니다

입금 계좌

농협 317-2021-0706-6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회원가입
바로 가기



회원증모
영상 보기

문의 02-3705-6008

회원증모를 위한 기도문

노병균
초원교회 담임목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꺼지지 않는 희망이 되십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신 주님, 그 날개 아래에서 쉼을 얻는
서울YWCA 구성원 모두가 당신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분깃과 기업이 되신 하나님
지금껏 당신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 없고,
당신께서 가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보심을 따라 살아왔고, 오늘도 여기 서 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이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찾는 이를 도우시며 굳세게 하신다는 것을 만방이 알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당신의 뜻과 어긋나지 않도록 붙드시고,
날마다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심으시고, 건설하시는 하나님
벌써 100년 전에 당신의 뜻을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꽃이 되고, 다시 흙씨가 되어, 곳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열매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낳고, 생명 사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불러 주옵소서.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당신과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구하는 것에나, 바라는 것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이 당신의 뜻에 합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홀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함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전부를 주께 맡기며, '이미 은혜', '항상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길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계완

서울Y 역대이사
한국 음식 연구의 선구자
(1916-2010)

1916년 전주에서 태어난 유계완 선생은
숙명여고를 나와 동경 일본여자대학 가정학부를 졸업하고
숙명여고, 서울피난대구연합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수도여자사범대학, 서울사대를 거쳐
연세대 가정대학 교수로 교육계에 공헌했다.

1955년 교육부 요리반 강사로 본회와 처음 인연을 맺고
1965년부터는 본회 이사, 식당부 위원장을 역임했다.
회원의 요리 지도는 물론
가정생활 운영에 대해서도 가르쳤으며
본회 식당의 음식 맛을 새롭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1960-70년대 청와대 국민 만찬을 전담하기도 했으며
「계절과 식탁(춘하추동 4권, 1976)」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구절판, 토란탕, 시래기나물, 호두유과는
유계완 선생 집안의 내림 음식으로 꼽힌다